

한국디카시연구소 입장문 3

— 새로운 단체 창립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하여

최근 한국디카시인협회(이하 협회)가 창작지도사 과정 수강생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는 새로운 단체의 창립 과정과 관련하여 왜곡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디카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입장문을 냅니다.

이미 충분히 밝힌 디카시의 본질과 정체성 문제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체성 수호에 대해서는 연구소가 이미 수차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한 바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자료와 학술적 증거를 전면 공개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직 새로운 단체의 창립 경위 왜곡에 대해서만 명확히 밝힙니다.

1. 단체 창립과 결별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창시자이자 대표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제디카시학회와 한국디카시인회의를 창립한 결정은 전적으로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인 저, 이상욱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결단에 의한 것입니다.

본 연구소는 오늘날의 디카시 운동을 태동시키고 이끌어온 본산입니다. 과거 한국디카시인 협회를 조직하고 출범시켰던 주체 역시 다름 아닌 우리 한국디카시연구소였습니다. 디카시 문예운동의 확장을 위해 협회를 만들 자유와 권리가 연구소에 있었다면, 디카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단체를 창립할 자유와 권리 또한 연구소와 저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단체를 창립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협회와 디카시의 정체성, 문예운동의 방향, 그리고 조직 운영 철학에서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근본적인 노선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미 협회 측에 '더 이상 뜻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별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 표시 이후 연구소가 디카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단체를 세우는 것은 문예운동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극히 당연하고 자유로운 권리 행사입니다. 결별한 단체와 사전에 상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2. 특정 개인을 향한 표적 공세와 책임 전가는 옳지 않습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마치 최광임 교수가 새로운 단체 창립을 막후에서 주도하고 기존 회원들을 회유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표적 공세입니다.

최광임 교수는 한국디카시연구소 부대표로서 오랫동안 디카시 운동을 주도해 왔으며 민간자격 디카시창작지도사 과정도 실무로 등록하고 교과과정도 짜서 표준화하고 성실히 운영하며 100여 명이 넘는 전문 인력을 길러낸 소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교수는 3기 강의를 하고 있던 중 해촉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교수는 협회의 집행위원장이었지만 한국디카시연구소 부대표입니다. 최교수는 한국디카시연구소 부대표로서 새 단체 창립에 실무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새로운 단체 창립은 대표인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행한 일입니다.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 특정 개인을 겨냥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 새로운 단체의 회원들은 자발적 신념과 공감으로 결집했습니다

국제디카시학회 창립에는 100여 명의 저명한 교수, 연구자들이 동참했으며, 한국디카시인회의에는 약 250명의 역량 있는 회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뜻을 모았습니다.

이 지성인들이 누군가의 선동이나 회유에 흔들릴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은 현 상황의 객관적 정보를 제시 받고 가입 여부를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를 특정인의 회유 결과로 폄훼하는 것은 회원들의 주체적인 예술적 안목과 자율적 선택을 심각하게 거스르는 것입니다.

한국디카시연구소는 오직 디카시의 학술화, 본격문학화, 그리고 국제화라는 본질적인 역사적 과업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잘못된 정보나 왜곡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7. 14.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 상 옥